| 불자 세상보기 |

'분노조절장애' 사회와 共業



허남결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외벽 도색하던 하청노동자
음악 듣기 싫어 생명줄 끊어
인터넷 늦다고 수리기사를
시비 끝에 칼부림 살해해

연이은 분노조절장애 살인
얼마나 부도덕한 사회인가

최소한의 공동체 의식 필요
불자들부터 자비심 나누길
사회적 차원 안전망도 절실

아파트 외벽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도색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의 휴대폰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밧줄을 끊어 추락사하게 만든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다.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신고를 받고 자신의 집을 방문한 인터넷 수리기사를 사소한 시비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소중한 남의 목숨을 빼앗은 범행의 동기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한심한 이유들이 아닐 수 없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을 지경이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험악한 세상이 되고 말았는가.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일어나면 범죄 심리학자들은 한국사회의 '분노조절장애' 범죄가 도를 넘었다고 진단한다. 다양한 종류의 원인분석과 함께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최근에는 분노조절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신과치료를 적극 권유하는 전문가들도 많아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모두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희생자의 가족입장에서 보면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편에서도 서로 의지하면서 화목하게 산 죄밖에 없는 그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생긴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할수록 억울하기만 할 것이 분명하다.

밧줄이 끊겨 생명을 잃은 사람은 5남매의 아버지이자 한 여자의 지아비로서 성실하게 살던 평범한 가장이었다. 인터넷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고객의 집을 방문했다가 비명횡사하게 된 다른 한 사람은 노모를 모시고 대학생 자녀 둘을 뒷바라지 하던 재취업 기술자였다. 그는 '동네 사위'로 불릴 만큼 주변사람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웠다고 한다. 우리는 그런 이웃사촌들을 너무나 허망하게 잃고 말았다. 두 사건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병든 사회인지 그리고 얼마나 부도덕한 사회인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와 같은 사회를 만든 것은 나 이외의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공업(共業)의 수혜자임과 동시에 공업(共業)의 기여자들이기 때문이다.

다소 진부한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최소한의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고 확산시키려는 윤리적 성찰이 무엇보다 요청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다. 그동안 너무 빨리 달려왔을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가지려고 아귀다툼한 업보를 받고 있는 것이리라.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각자의 위치에서 나부터 조금씩만 욕심을 내려놓기로 하자. 자본주의 체제를 수용하는 이상 개개인의 사적 이익추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현재와 같은 무한경쟁을 당연시하는 사회 분위기는 지금부터라도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이럴 때일수록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더 나아가 부처님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불자 이웃끼리라도 자(慈)와 비(悲)의 마음을 서로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을 향한 적극적인 마음씀씀이를 의미하는 자(慈)와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참여하는 소극적인 마음나누기로 이해되는 비(悲)의 실천은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남들에게 갖는 작은 관심만으로도 충분한 것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차원에서도 안전 시스템의 제도적 확립과 유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불행한 두 사건을 계기로 공업의 엄중함을 깨달음과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자비심이라도 실천하자는 사회적 캠페인이 들불처럼 일어나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사유의 숲을 거닐며
송마나 작가

백합 향기

백합, 치명적 향기 내는 꽃
밀폐 공간선 향기 아닌 毒
무엇이든 과하면 좋지 않다

딸아이한테 꽃바구니가 배달되었다. 찬찬히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만다라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다.

장미가 고혹적인 자태를 뽐내고 연분홍 델피움과 노란 스토크는 활짝 웃고 있었다. 탁구공이 튀어 오르듯 연둣빛 머리를 불쑥불쑥 내밀며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라낭큐러스. 배추 잎 치마를 두른 리시안은 부끄러운지 바닥에 주저앉았다. 셀렘과 유카리도 손바닥보다 더 큰 잎을 감추며 이웃 꽃들이 돋보이도록 몸을 낮췄다. 이들의 조화로운 모습은 나를 잠시 행복하게 했다.

그러나 꽃바구니에서 단연 돋보인 것은 하얀 백합이었다. 심연을 드러내지 않은 고결한 자태와 매혹적인 향기란. 이런 까닭에 백합은 순결과 변치 않은 사랑이란 꽃말을 얻게 되었나 보다.

흰 백합은 순결과 처녀성의 종교적인 상징으로 중세에는 제단이나 성모 마리아 상을 장식하곤 했다. 프랑스의 부르봉과 독일의 프랑크 왕가, 이탈리아의 피렌체, 캐나다의 퀘벡 주 등의 문장(紋章)에는 백합 문양이 그려졌다. 이처럼 백합은 자태와 향기가 빼어나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중학생 시절이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방에서 교복을 벗다가 그만 쓰러졌다. 책상 위의 꽃병에 듬뿍 꽂아둔 백합꽃 향기 때문이었다. 어머니께서 낮에 꽃밭에 핀 백합을 꽃병에 꽂고 방문을 닫아두었더니 독한 꽃향기가 방 안에 가득 찼던 것이다.

백합은 치명적인 향기를 내뿜는 꽃이다. 밀폐된 공간에 백합과 함께 오랫동안 있으면 강한 향기에 질식할 수 있다. 그래서 철부지들은 수백 송이의 백합과 함께 잠이 들어 영원히 깨어나지 않겠다는 어리석은 소리를 하기도 한다.

백합 한 두 송이의 향기는 얼마나 싱그럽고 향긋한가. 그런데 이 백합 향기가 과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니. 그래서 예부터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고 했던가 보다.

향기가 좋다고 마냥 꽃향기에 취해있는 것도 세존께서는 향기 도둑이라고 말씀하셨다. 꽃향기에 빠져있는 그 마음에는 이미 향기를 훔치는 욕망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향기를 내뿜는 백합, 그 향기에 빠져드는 인간. 모두가 비식(鼻識)의 탐착으로 이것은 오온(五蘊)의 유희 때문이 아닌가.

백합(百合)의 '백' 자는 흰 백(白)이 아닌 일백 백(百)이다. 백 가지의 모임이라니. 백합의 알뿌리가 백 겹으로 둘러싸인 비닐줄기라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백합을 흔히 흰색 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꽃잎 색깔이 하얀 경우는 드물고, 흰 백합이 대중화가 되도록 원예작물로서 키웠기 때문이다.

청초하고 순결한 하얀 백합이 겉은 희고 속은 검은 백로 같이 느껴진다. 어디 백합뿐이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갈애(渴愛) 덩어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조견 오온개공 도일체고액(照見 五蘊皆空 度一切苦厄,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알아서 일체의 고액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의 〈반야심경〉을 되뇌며 나의 비식을 경계한다. 딸아이 방의 창문을 활짝 열어야겠다.

社 說

신도교육, 전문성이 중요하다

조계종의 신규 신도교육기관인 신행불교대학이 6월 21일 최종 선정됐다. 16곳으로 140여 기존 불교대학과 함께 신도 양성의 산실로 자리할 것이다.

신행불교대학은 그동안 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찰들에 신도교육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준 성격이 강하다.

열악한 사찰 환경을 고려해 교육이수 시간부터 강사진 구성, 정원기준까지 대폭 완화됐다.

이런 대중화가 자칫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사찰이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이런 개별 교육을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실무 차원에서는 많은 문의 전화 대부분이 조계종 인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란 하소연도 들려온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교육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가장 먼저 대안으로는 개별 교육과 함께 선택적으로 진행하게 한 디지털 대학 제공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찰ID를 통해 접속하고, 영상 방영 시간 등의 기록이 남기 때문에 개별 교육에 비해 관리가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강의가 힘든 사찰환경의 경우 빔 프로젝트 등 교구재를 포교원이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신도교육은 대중화와 전문화의 두가지 토끼를 잡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전문적 교수법이 도입된 체계적 신도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과외 수준의 교육에 지나지 않는다면 신도교육 대중화의 취지가 무색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제주4.3 재조명, 불교사 바로잡는 길

국가권력에 의해 승가의 위상과 스님들 인권이 유린당한 불교계 대표 사건은 1980년 벌어진 10.27법난이다.

이는 한국불교계 현대사의 치욕이자 신군부 정치적 시나리오에 불교계가 짓밟힌 사건이다. 이 사건은 발생 20여 년이 지나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통해 '국가권력 남용사건'으로 규정됐다. 이후 2008년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며 과거사 치유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1947~1954년 제주도서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 간 무력충돌로 빚어진 주민희생 사건인 제주4.3은 불교계와 거리가 멀다는 인식이 높다. 10.27법난처럼 탄압대상이 불교계에 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4.3 당시 불교계 피해는 상당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사찰 법당과 요사채 등이 전소되거나 불상·탱화 등이 훼손되고, 특히 14개 사찰 16명의 스님들이 총살·수장되는 등 반인륜적 피해를 입었다. 제주불교연합과 제주도의회 길상회는 이 같은 문제를 알리고, 불교계 차원서 역사를 조명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제주불교계의 움직임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지는 미지수다.

내달부터 4.3피해 사찰순례와 영가 헌다례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사회적 공의가 모이지 않으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불교계는 뜻을 모아 선대 스님들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헤아려 역사를 재조명하고, 추념사업에 나서야 한다. 국가권력의 만행을 후대에 알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때 이 땅의 민주주의가 바로서고, 불교계의 위상 또한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	연 락 처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512-5003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0-8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부 산 지 사	이 도 경	010-5640-8883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